

# 무안군 예산으로 반대 현수막·광고...찬성 여론 원천봉쇄

무안군 관 주도 군 공항 이전 반대

김산 군수 취임 이후 조직적 대응

무안공항 통합 합의 파기 원인 제공

위법 소지 조례로 반대단체 일방 지원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나선 것은 2018년 7월 현재의 김산 군수가 취임한 이후다.

김 군수는 같은 해 8월 당시 이윤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광주 민간공항(국내선)의 2021년 무안 공항 이전 통합 합의'까지 했으나 이후 군 공항 반대행진·재정력을 총동원하고, 무안 주민들에게 군 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데 전력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민간 공항과 함께 군 공항 이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광주시는 이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고, 전남도 역시 이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공항 문제가 지역의 난제로 자리잡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 됐다.

무안군이 제정한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는 민간공항 이전과 같은 문제 없이 단순히 군 공항 이전 반대행진에 나선 경기도 화성시의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2017년)와 유사하게 작성됐다.

◇조례로 군 공항 이전 반대 모든 활동 지원 가능 하나=무안군의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는 현장설명회 등 개최 근거 및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제정됐다. 무안군수의 책무를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군민의 갈등·분열 방지, 군민 화합·지역발전 기여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군 공항과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군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군 공항 이전 반대만을 위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다. 현장설명회는 군 공항 인근 및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교통 편의와 식사류·다과류·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강사를 위촉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범

대위에 하는 군민 홍보 및 서명 운동, 주민설명회·현장견학·군민교육,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 여론 수렴, 관련 단체 교류 및 단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범대위가 무안군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아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사실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정착하도록 해 지역 경제 성장·발전에 힘써야 할 무안군이 조례 제정 이후 군 공항 이전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만 주력하고 광주시, 전남도와도 논의 자체를 단절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사무원이 군 공항 이전에 관해 법령의 질의를 무력화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 공항 이전 찬성 여론 형성 원천 봉쇄 논란=광주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28일 인천 월미도에 견학을 간 무안을 이장단 33명 가운데 군 공항 이전을 찬성한 이장은 15명에 달했다. 기권이 11명, 반대가 7명이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지

만 무안군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군 예산으로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 택시 등에 반대 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 공항 이전 반대 업무를 맡고 있는 무안군 미래 성장과 군공항대응팀의 팀장은 사무관 승진 코스로 알려져 있다. 6급 팀장으로 발령받은 뒤 1년 4개월~1년7개월 만에 모두 사무관 발령을 받으면서 공직자들이 군 공항 반대 업무를 서로 맡기 위해 경쟁에 나설 정도다.

무안군 한 이장은 "무안군수가 지난 5년간 군 공항 이전 반대 여론을 압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군 공항 이전 반대 사업과 예산 집행=무안군은 지난 2019년 본예산에 5억8063만원을 배정한 뒤 2차 추경에 9억13만 원까지 증액했다가 최종적으로는 3억4659만 원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군 공항 이전 관련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

역에 1억5000만원, 군 공항 주변 소음 범위 및 영향 분석 용역에 1억8000만원, 군 공항 주변 축산 및 수산 피해 조사 용역에 8000만원 등 4억1000만 원을 쓰겠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에만 80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군 공항 관련 주민 인식도 조사에도 2000만원을 배정했으나 쓰지 못했다.

군 공항 이전 반대 관련 예산 규모가 가장 컸던 2022년 본예산(6억6638만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 공항 이전사업 바로 앞 홍보 및 대응 2억 원, 군 공항 관련 주민 인식도 조사 2000만원, 군 공항 이전 대응 법률 자문 및 소송비 5000만원, 영상 제작 2000만원, 군 공항 대응 업무 추진 현수막 55개 제작 990만원, 군 공항 이전 저지 이동 홍보관 차량 임차 4800만원,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4만 세대 서한문 제작 4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예산이 실제로 어떠한 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 태평양도서 10개국 정상과 연쇄회담 "신뢰 기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해 나갈 것"

ODA 지원·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앞서 지난 28일에는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날 5개국까지 이틀간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연쇄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를 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 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에 양측 간 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회담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의 협력 관계에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 의장인 브라운 총리와 함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브라운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망간, 철, 니켈, 구

리, 코발트 등 자국의 풍부한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도 협력하자고 회답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주마셜제도 상주공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부아 대통령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회담에서 오는 11월 솔로몬제도에서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의 성공을 기원하고,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티나강 수력발전소 사업, 뉴조지아섬 조립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달튼 타갈라기 니우에 총리에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니우에와 수교하면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돼 뜻깊다는 의사를 표했다.

수령길 험스 팔라우 대통령에게는 지난 25년간 한국 명예영사를 역임해온 점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팔라우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태평양도서국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실시하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줬다"며 "각국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 지지율 40.0%...석달만에 40%대

리얼미터...민주 44.5%·국힘 38.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래킹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

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포인트(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민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

였다. 5주간 총 7.4%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p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1%, 더불어민주당이 44.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비교하면 0.4%p 내렸고, 민주당은 2.1%p 올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학교폭력예방캠페인

#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일보